

자주로 핀 기반디오 10기 부경여대협 조직국 1차 회의

참가단위: 경남대, 경상대, 동명정보대, 동아대, 부산대, 창원대, 여대협, 울산대

0.여는시

생략합니다. ^^

1.보고안건

- 학교보고(조직생활, 학습, 소모임 사업, 단대.과여부 사업, 새내기 사업, 부경여대협 내의원)
- 부경여대협 보고

2.토론 안건

- 과여부 건설(전여대협 자료실)
- 소모임 운동을 활성화 하자 (전여대협 자료실)

3.논의 안건

- 학교별 소모임 평가, 소모임 계획, 1년 활동계획
- 단대, 과여부 사업 모범 사례
- 새내기 사업

4.기타안건

- 전여대협 홈페이지 활용, 지역 여대협방 활용
- 다음 회의 날짜는?

과 여학생회(부)

내 손안에 있소이다!!!

-과여학생회(부) 건설, 강화사업에 대하여-

1. 왜 우리는 과여학생회(부)를 강화해야 하는가?

여대생 앞에는 여성해방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봉장의 책무를 다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여대생이 시대와 민족이 부여한 중임을 다하자면 여학생운동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운동발전과 성과를 위한 필연적 요구일 뿐 아니라 학생운동의 현 실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여학생운동의 발전과 성과를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우리운동은 사회를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느 한 두사람의 힘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오직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해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대중의 참가를 요구하는 사회변혁운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시키자면 운동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학생운동이 근본목적은 원만히 참가시키자면 광범위한 여학생 대중이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대중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부연하자면 여성해방운동 자체가 여성을 위한 것이고 또 여성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성운동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여학생운동이 대중화를 실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는 학생운동의 현 실태를 봐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학생운동은 투쟁에서 알만한 성과를 거두며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과 김대중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자 애국민중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고 그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총련이 크게 피해를 입고 학생운동의 입지가 위축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지역적이고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는 현상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쟁에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생운동의 입지약화와 더불어 여학생운동 또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는 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이고 현실의 절박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상운동의 영역에서 고찰할 때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당면 시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명백합니다. 핵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한 요구에 맞게 투쟁을 전개하려면 이를 능수능란하게 지도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을 마련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핵심은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대중 속에서, 대중 조직에서 준비되고 마련될 수 있습니다.

하기에 핵심들은 더 많은 대중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데 주력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즉, 기층 여학단위의 소모임을 건설, 강화하는데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대중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에서도 약간 설명되었지만 한총련에 대한 내외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전여대협 또한 핵심역량과 조직역량이 적지 않게 손실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역과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과여학생회(부),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조직 재생산 구조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직실체가 소멸되어 버린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 조직화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는 전여대협이라는 큰 틀을 갖추고 있는 자기의 대중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발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기에 전여대협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운동의 대중화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전여대협의 기본단위인 과여학생회와 소모임을 옮겨 세우며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학생조직의 운영원리로 되는 것입니다.

운동의 대중화는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조직의 대중적 건설정도와 그의 활동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여학생

회(부)·소모임을 활성화하지는 것은 다른 아닌 한총련,전여대협의 밑뿌리가 되는 기층조직을 건설, 강화하고 그 속에서 주체(핵심)를 마련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변혁적인 기층조직을 건설, 강화하기 위한 주체(핵심)를 마련하지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주체를 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기층조직사업의 활성화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중핵적인 사업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과여학생회, 소모임을 건설 강화를) 단순히 며칠 고민하고 몇 달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구도와 흐름을 가지고 이악스럽게 매달려야 할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2. 과여학생회(부)의 역사

각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85년 이전 시기 학도호국단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여부는 그 지위와 역할이 여학우들의 권익이나 편의 신장, 행사 때의 뒤치닥거리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대동풀이 행사 때 주막을 도맡아 하거나 과행사 수련회 등에 밥을 준비하는 정도, 또 스승의 날에 한복 곱게 입고 교수님께 꽃 달아드리기, 남학우들 응원단, 어느 과는 꽃꽂이 강습회 등을 열기도 했었다.

85년 이후 다시 학생회가 부활되고 총학생회,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면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과여부를 만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과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여성문제를 과학우들과 함께 인식,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여부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이 해명되기까지도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해 최근 몇 년 전부터서야 과여부의 올바른 지위와 역할이 규명되고 이에 따라 과여부 제자리 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여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옮겨 풀어내지 못한 많은 과여부들이 해체되기도 해서 과여부를 재건설하는 문제도 심각히 제기되었다.

3. 과여회(부)의 역할

여학우들은 여성으로써, 또한 청년학생으로써 이 땅을 살아간다. 즉 순종적이고 소극적이며 비주체적으로 '가정'이라는 굴레 속에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길들여진 여성이지만, 잘못되고 그릇된 모순을 옮겨 보고 이를 진취적이고 꿰뚫어갈 극복해 나가려는 청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여성들보다 '여성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이 사회의 편견과 모순을 더 빨리 파악하고 이를 풀어내 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혜택받은 계급으로서 더 높은 지위로의 상승에 호조건을 갖춘 여학우들은 종종 "나 혼자만 잘하면..."이라는 허위의식,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의식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더구나 지금 이 사회는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봉건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는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자본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도 실력을 갖춰 사회로 진출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본래 역할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화, 여성노동력의 산업에 비금화를 가속화한다든지, 여성비하를 골자로 한 성의 상품화를 노골화시켜 이윤을 늘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하기에 요즘의 여성문제는 더욱 더 깊이가 그 본질을 꿰뚫 수 있어야 문제를 간파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대중 보시는 '그래도 옛날보다 낫지'로밖에 안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도 공동으로 해내지 않으면 단 한가지도 얻어낼 수 없다. 아주 가깝게 최근의 일만 봐도 그렇다. 여성의 평생 직장은 가정이라야 말도 안되는 정리해고를 당하게 여성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이고, 자본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들의 술수도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여학생회나 여부가 필요하다.

즉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여학우 남학우들과 함께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악, 실천 속에서 대안을 찾아나가며 한편 기간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으로 길들여진 여학우들의 적극성, 자기 삶에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성을 끌어내주어야 하는 학우들의 하나된 묶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학생회, 여학생부이다.

또한 여학우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생으로 살아감으로 학내의 문제나 학문적 요구 역시 자신의 존재적 특성에 기반하여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1) 지위

① 과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과여부는 일차적으로 과내에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실현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여학우들의 편의, 권익 보호 항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한 과제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결해 주는 식이 아니라 여학우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여학우들이 학

생회의 주인으로 나서면 더불어 과 전체 학우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과학생회의 집행부서이다.

과여학생회(부)는 과학생회의 집행부서이다. 그러므로 과사업을 여학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실천 방안을 풍부화하고 또한 과사업에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총여학생회의 확대운영위원이며, 단대 여학생회의 운영위원이다.

과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단대 여학생회로 총여학생회로 충분히 모아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전반적으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용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어, 총여에서 나온 사업방향과 사업과제를 과여학우들 속에 함께 풀어내어 단대 여학생회, 총여학생회 사업속에 보다 대중적으로 참여, 이의 성과도 과여학우들에게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한다.

2)역할

1) 여학우들이 주제적으로 자기 삶에 주인이 되게 한다.

여학우들은 20여년에 걸쳐 소극적이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되어져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능력있는 여성을 최고의 모델로 내세우며 가정과 사회 둘 다 충실한 슈퍼우먼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용게 보지 못하고 취업준비 등으로 더욱 개인주의화 되거나, 자기 패배감에 빠져 자기 삶을 진정으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학우들이 자기의 삶에 보다 적극적인 주인으로 나서도록, 가려져 있는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본성을 적극적으로 발향시켜야 한다. 또한 공동체적인 문화와 함께 하는 사회활동으로 꾸러 이를 통해 집단 속에서 사회성을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

2) 과학우들 속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올바른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체인 여성문제를 풀어나간다.

여성문제는 여학우들의 삶 뿐만 아니라 남학우들의 삶도 왜곡시키고 굴러지워 놓는다. 또한 여학우들의 힘만 가지고 풀이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성문제는 사랑, 결혼, 연애, 가정, 직장생활, 학교, 사회 등등... 어느 곳 어느 때나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므로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과내에서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내용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4. 과여회(부)의 현재적 모습

1)각 과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과거 학도호국단 시절 과여부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과에서부터 과여부 나름의 사업정책과 계획에 과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성문제 인식, 과여부 주위로의 조직화 등 구체적인 실천정도를 모색해가는 과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2)과여부의 전문적인 자기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과마다 차이가 많으나 모범적인 과에서는 과여부의 사업을 과내에 정착하고 학우들속에서 보다 더 대중적으로 풍부화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과에서는 자기 내용없이 학생회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분공받거나 다른 부서 사업과 겹침을 하면서 여부 사업의 맥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단어에서나 총여에서 과여부의 올바른 풍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지도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것의 대안으로서 과여발특위를 고민하였으나 이것 또한 과여부를 내실있게 총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과여부를 지도할데 대한 내용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오류를 겪었다. 이는 단어나 총여에 과여부의 올바른 풍부한 사업내용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3)과여부의 주체가 울곧게 서야 한다.

과여부 사업은 과여부장을 비롯한 주제들이 얼마만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잘 생산하여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사람이 없어서 줄지어 떠맡김을 당한 여부장들이 얼골조차 보이지 않거나 시작할 때의 열의를 울바로 풀어내지 못하여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서 다음해 여부장도 똑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아예 과여부를 세울데 대한 고민을 전개하면서도 이제 과여부는 필요없는 부서, 과여부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 부서로 인식하고 점점 과여부를 세우지 않는 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간부의 생산구조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것과 관련이 있다. 여학운동이 조직사상적 토대가 약함으로서 여학운동을 책임질 간부를 재생산해내지 못하고 그 결과 과여부를 지도할 만한 주체가 마련되지 못한다.

4)과여생회(부)가 과여학우를 자기 대중으로 가져야 한다.

과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부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에서 여학생회(부)가 여학우들의 대표체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과여생회(부)가 학우들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그들에 의해 집행될 때 풀어지는 문제라고 본다. 과여회(부)장은 과학우들을 만나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5)과학생회, 단과대 여학생회, 과여학생회(부)가 함께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과여학생회(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과학생회와 단대 여학생회의 지도와 총화가 잘 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생회에서 여회(부)의 역할을 용게 인식하지 못하고 연계 또한 제대로 맺어지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종종은 서로의 사업이 대치되기도 한다. 과학생회 간부들도 결국은 가부장제 하에서 교육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 속에서 여부의 지위와 역할에 동의할 수있도록 단어나 과여부가 주체가 되어 여부와 끈기를 가지고 잘 교양해 주어야 한다.

6)과여학생회(부)를 세우는 노력과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과여학생회(부)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체계마저 없어지면서 대학에서는 실제 시도조차 하고있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기층이 없다보니 정형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세워내는 사업부터 내실있게 해 들어가야하는데 모른다든 이유로 될까 안될까 하는 확실성, 자신감을 갖지못하면서 그저 막연히 한숨만 내쉬고 있는 모습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이곳저곳에서 분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5.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설하자.

대학마다 워낙 편차가 많이 존재하는 형태이고 또한 대학내에서도 단과대학과 과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세워내도록 해야겠다.

1)우리과에는 여회(부)가 필요없어요!

이 경우는 과회장님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되게 과여학생회(부)를 건설할 때 과회장님을 맨 먼저 만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느낄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도들을 고민해보아야한다.

-토론회, 간담회 제안

여성문제 또는 과여학생회(부)에 대해서 과집행부,과학우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 토론회를 제안한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다.

*토론회, 간담회 내용

①총여학생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②생활속에서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

③여학생운동과 총여학생회란 무엇인가(필요성과 중요성)

④학생회에서 여학우들에 대한 고민을 늘어날 데에 대한 필요성 (곧 단어에서 주체를 마련해야하는 필요성)

⑤단대 여학생부장, 과 여부장의 기본적인 1년 활동

⑥단위 고민 총화,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점 등...

-분위기 제안

과회장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주위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한번이라도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과집행부들 중 필요성을 느끼는 간부들을 동원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지 단과대 운영위에서 다른 과회장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2)우리과는 여회(부)를 세우고 싶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실제 주체를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다. 학생회 집행부를 할 사람이 부족한데 과여학생회(부)까지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중요한 총무, 선전, 문화 등을 세우고 거의 마지막정도에 사람이 남으면 그때서야 과여학생회(부)를 생각하게 된다.

-일반학우라도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세워내도록 한다.

과여학생회(부)는 단과대 여학생회와 총여에서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학우로 세우더라도 여성문제에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지도되고 담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과집행부내에서 합의만 된다면 최대한 세워내도록 한다.

--임시주체로 과집행부 중 한명이 검임을 한다.

도저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집행부 중 한명이 검임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것은 지도할수 있는 실제 주체를 마련하는것이기에 때문에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많은 부담과 많은 사업투쟁을 진행하지 않는 속에서 사람을 챙겨내는 데 주력하는 걸로 고민을 하면 과에서도 고민을 해볼만한 방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해에 과여학생회(부)를 세우는데 고민을 한단계 전척시킬수 있다.

3)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세워드 맨날 똑같이 힘들어하다가 떨어지나가서 세우는게 소모적이에요!

이 경우는 필요성도 알고 적당히 세울 사람도 있으나 과외학생회(부)의 역할을 하면 사람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잘 떨어지나가 더라고 고민하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과외학생회(부) 또는 총여학생회에 대해 크게 신뢰를 하지 못한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사업 하는 간부가 과집행부내에서 신뢰를 쌓아야한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면서 신뢰를 쌓는 것은 사업과 투쟁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과행사가 있을 때 함께 도움을 주고 학교 전체적으로 사업과 투쟁이 진행될 때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로부터 신뢰를 돈독히 할수 있다.

-구체적 1년 사업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무조건 신뢰만 쌓는데서 바로 세운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총여학생회에서 단과대여학생회에서 1년동안 어떤 목표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 해주어야한다. 그래야지 우리 과외학생회(부)에서도 함께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구체적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도방법과 지도내용에 대해 과집행부와 토론하고 합의한다.

총여학생회나 단과대 여학생회에서 실제 아주 밀착적으로 지도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한 간부가 단과대 여학생회와 과외학생회(부)를 몇 개씩 맡다보면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럴때는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만나고 지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한다면 더욱 힘있게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과외학생회(부)장을 어떻게 챙길것이며 어떻게 1년동안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한다.

6. 과외회(부)는 이렇게 지도하자.

1)목표를 설정하자.

대학에서 과외학생회(부)를 세우는데는 목표가 정확해야한다. 특히나 한정된 일꾼들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되는 여학생회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단은 대학의 여학생운동 현황을 파악하고 과외학생회(부)를 세우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역량투어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한다. 말하자면 우리학교의 여학생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사상적으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강화해야하는지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총여학생회만 있고 단과대 여학생회, 과외학생회(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이런 경우 무조건 과외학생회(부)만 세운다고해서 될 수가 없다. 단과대 여학생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과외학생회(부)를 세우는 사업들을 조금씩 병행해서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올해는 단과대를 3군데 세우고 과외학생회(부)를 3군데 세운다. 다음해는 단과대를 5군데 세우고 과외학생회(부)를 10군데 세운다 등등으로 이렇듯 학교 대학생운동의 2-3년간의 장기적 목표와 계획속에서 진행되어야한다. 2-3년간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이 생긴다음 올해의 목표와 계획을 그것에 맞게 세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2)사업과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총여학생회는 단과대 여학생회는 과외학생회(부)랑 항상 동고동락해야한다. 무슨일을 하더라도 과외학생회(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투쟁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술한잔을 하더라도 항상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챙겨내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3)과외학생회와 단과대 여학생회가 올바른 지도와 총화를 하자.

과여부 모범 창출로 그 모범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대학별로 기층 강화사업을 고민하면서 과여부를 발전 시킬려고 하고 있다. 과외학생부 발전 특별위원회(과외발특위) 및 과여부까지의 확대운영위 및 지도사업을 내실있게 가져가는 여러 방안이 그간 제출되었다. 이것의 성과를 계승하여 기층 과여부를 강화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과외발특위 모임을 가져갔을 경우 성과는 총여에서 직접 기층을 지도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기층학우들의 의식흐름에 맞게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기층일꾼들이 직접 학우들과 총여학생회 사업을 풀어나가는 성과가 있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진행되었던 모임의 내용에 대해서 단과대여학생회나 과외학생회와 총화를 잘 하는 문제이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임 총화서를 가지고 직접 단어나 과외학생회에 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외학생회(부)발전 특별위원회 또는 과외학생회(부) 주제모임

기간 여학생운동의 과정을 평가하고 전망을 내보았을때 과여부(회)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는다. 과여부의 제자리 찾기는 여학생운동의 대중성 확보와 조직강화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제를 꼭 마련해야 하며 주제가 마련되지 못하더라도 과여부에 대한 고민을 주동적으로 해나갈 사람을 꼭 꾸려야한다. 여학생회는 총여-단과대여학생회-과여부의 전일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간다. 다시 말해 단어를 지도하여 그 단대, 그 과에 맞는 (단과대별 특성이나 현실적 역량에 맞는)과여부 사업의

내용을 생산하여 구체적으로 그 과여부장의 역할을 높이면서 운영이 되고 총여는 바로 이러한 단어의 활동을 총화하고 어려운 점을 지도한다.

그러나 단대 여학생회의 건설이 미비하고 그 역량이 부족하여 과여부를 잘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총여학생회에서 과여부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과외발특위란?

-과여부의 지도에 있어 단어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총여학생회가 직접지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여부 내용생산에 있어 현재 활동중인 과여부장들의 고민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내용생산이후 활동을 직접 총화하여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모범과를 발굴하여 이 모범을 전파하고 과여부 사업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어의 과외발특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수도 있다. 그것은 총여학생회 운영위를 통해 과외발특위 내용을 각 단위에 총화하고 지도내용을 분공한다. 즉 총여학생회는 정책과 사업내용을 생산하고 단어는 과외학생회(부)를 직접 현지지도하고 또한 과외학생회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그리고 단어 운영위를 통해 그 모범을 전파 보급한다.

•구체적인 운영

학생회 선거이후 과여부 건설관련 상황 총화를 먼저 시작하여, 그 중 과여부장의 적극성이나 의식성, 과외학생회에 대한 관심정도가 많은 여부장을 단대마다 몇명정도 묶어세워 과외발특위를 조직한다. 그 여부장들을 중심으로 예비모임을 시작하여 방중에 단련사업을 시작한다.

7. 과외회(부)는 무슨 일을 해야할까? (과외회(부)계획의 의의)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과의 실정에 맞게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과학우들 모두의 인식을 확 바꿔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여유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람사업은 모든 사업 모든 운동의 결정체입니다. 여부원들과의 자리도 많이 만들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게요. 그리고 1년 평가또한 잘 해서 넘겨줍시다.

●사업목표

1. 여성문제를 알려내고 여학생부 주위로 여학우를 묶어낸다.
2. 여성문제. 특히 학내와 과에서 있는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남학우, 여학우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과외학생회를 중심으로 남학우 여학우가 함께 공동체 문화, 토론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사업과제

1. 과여부의 올바른 자리매김
2. 과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
3. 사회의 여성의 삶을 알아가기

●사업내용

1)정기적이고 꾸준히 해야할 사업

▶여성문제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기 위한 대자보 쓰기

방법 : 여성문제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기 위한 자보쓰기

장소 : 과학우들이 많이 모이는 곳(전공강의실, 과외학생회실 등)

내용 : 월별로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시기별로 이슈화된 내용도 좋겠다. 우선 자료수집, 정리하고 여부원들과 토론해보고 그 결과물을 낸다. 예를 들면 성폭력의 원인 및 실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을 찾아간다든지, 이북여성 바로알기든지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든지 등등)

▶여학생부 소식지 발간

내용 : 여학생회 사업공유, 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학우들의 진솔한 글, 내가 느끼는 여성문제, 함께 고민하는 여성문제, 학우들 생일 챙기기 등

▶탁아소 방문

나도 예비 여성노동자! 우리도 커서 아이를 낳을텐데 탁아문제는 나의 문제, 정기적인 탁아소 방문으로 과학우들과 여성노동자의 2중고통을 알아보자. 굳이 탁아소가 아니더라도 원가의 실천활동을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들어가면 좋다.

▶설문조사

과여부에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한 몫 단단히 할 설문조사는 소식지 발행에 맞춰 과학우들과 과 여부 사업도 평가하고 의식을 묻는 좋은 방법

▶책들러읽기

흔히들 여성학에 관련된 도서는 잘 읽지 않는데 여학생부에서 정기적으로 여부원들과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감상글을 적어 게시하고 학생회실 안에 비치하여 돌아가면서 읽어본다.

2)기획하여 진행하는 사업

▶새로배움터와 수련회 때 : 과여부 소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MT때 여부내용 잡기 등

▶여학우 대면식 : 여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학생회로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자리

따로 대면식을 하기 어려우면 수련회 때 1시간쯤 자리를 내는것도 좋다.

▶과의 날, 과 대동놀이 : 1년 사업을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전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겠쥬.

인식극, 기획거리, 여학우 체전 등

여학우팔씨름대회, 남학우과일깎기대회 등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내용들도 하면 좋다.

▶학술제, 세미나 , 작은 토론회

방법 : 과내에서 외부강사를 섭외하고 이후 토론

내용 : 여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기 : 한 학기에 한번정도

▶비디오 상영

시기 : 한학기에 두 번정도

방법 : 전공강의실을 빌려 수업 끝난후 함께 토론.

미리 여부원들끼리 영화를 보고 감상문이나 영화소개글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나눠주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다.

▶농활 - 여성농민과의 연대활동

3)사람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과여학생회(부)도 어느 사업, 어느 운동과 다름바 없이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 가지 사업과 투쟁을 잘 진행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닳을 때 그 다음해의 주체 즉 사람이 남지 않는다면 실제 성과가 계승발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고민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1년 초부터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1년내내 진행해야지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 사람을 남길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꾸릴 때 : 자신감을 가지고 만난다.

일단 한 두명이라도 꾸러지면 모임을 한다.

모임은 정기적이고 꾸준히 진행한다.

여부원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준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를 가진다.

▶사람이 꾸러지면 : 여성문제와 관련된 학습, 토론진행

활동적이고 성과점이 남게 진행한다.

활동내용은 꼭 학우들에게 공개하여 학우들에게 여부 사업도 알리고, 여성문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부원들에게도 보람을 준다.

▶과여회(부)원들 또는 함께 묶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주자

- 학습주체 : 학습할거리를 고민하고 학습내용에 대해 학우들 의견수렴을 하는 주체

- 선전주체 : 선전할거리를 고민하고 선전내용 초안을 작성하여 다함께 선전을 진행하여 학우들에게 알려내는 주체

- 정보통신주체 : 진행하는 사업과 투쟁을 과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과여학우들 이메일등을 관리하는 주체

- 기타 : 총무, 여학생회(부) 비품관리주체 등

소모임은 어떻게 활성화하자!

1. 소모임은 어떤 존재인가?

소모임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일은 학생회 강화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선행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회, 소모임의 두리에 묶여있는 학우들을 총화하는 작업이며 학우들의 삶의 총화에서부터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의 나아갈 방향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① 학우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묶는 생활공동체 단위입니다.

학우들이 비교적 손쉽게 자발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위이고, 그러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학생회라는 틀 속으로 자연스럽게 더욱 끈끈히 묶일 수 있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생활하면서 내용을 혹은 활동을 해나가는 기본단위가 됩니다. 특히 소모임은 특별한 틀(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관계, 즉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모아가는 단위가 됩니다.

학우들의 일정 자연발생적이고 산만하게 제출되는 이해와 요구를 소모임이라는 틀을 통해 직접 지도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이고 통일적인 이해와 요구로 모아나가는 소단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③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를 형성하는 단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활동을 하며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기에 집단주의를 사람의 기본요구라 합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요구 또한 소모임 구성원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 실현가능하고 구성원의 공동의 이해라는 것으로 인해 서로의 결합력과 소속감을 높여게 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구성원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단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뿌리깊게 퍼져있는 개인주의를 극복하며 집단주의를 체득하는 것을 일정 가능하게 하고 과 내에서 집단주의적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④ 모든 남학우 여학우들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⑤ 실질적으로 많은 단위에서 여학생회 일꾼을 배출하는 역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⑥ 학생회 강화에 근간이 되는 대중조직입니다. (자기 본성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는 단위)

대중조직은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하는 것이 자체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자기 활동을 가져가야 합니다. 대중조직이 포괄하는 대중들의 정치사상, 의식수준, 이해와 요구는 다양한 수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중조직은 이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90년 이후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학생회는 이러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나가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학생회 내 체제 중 소모임은 이를 가능하게 하며 학생회가 대중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단위입니다.

이렇듯 학회, 소모임은 과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학우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풀어나가며 학우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단위입니다. 이는 학생회내의 조직으로 학생회 강화에 복무하는 자기 역할을 가집니다. 다수의 학우들을 포괄하여 학생회 두리로 묶어내는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내세워내는 대중조직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2. 소모임의 현재적 상황과 그 원인 (현재적 상황에서 바라봅니다)

1) 학회, 소모임의 현재적 상황은?

96, 97년 백만 학도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이 정권에 의한 심각한 탄압을 받음으로써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그 누구

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한총련은 근 2-3년간을 한총련 사수 투쟁에 중심 무게를 싣고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운동 대중화 즉, 학회,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조직 강화에 좀 더 주목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회, 소모임에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권은 물리적 탄압뿐만 아니라 패권적 행각을 자행하면서까지 중앙에서 기층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핵심들을 무참하게 탄압해왔습니다. 정권의 무차별적 탄압을 이겨내고 역경을 순경으로 돌려 이제 우리는 변혁의 요구,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동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을 이겨냈던 것도 여의치는 않았지만 학회,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조직의 상황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기층간부는 기층간부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 내에는 많게는 4-5개의 학회, 소모임이 존재하였고 학회, 소모임의 성격이 어떠한 낮은 수위나마 과 학생회 강화에 복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회의 학회, 소모임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회와의 연계도 갖지 못하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3가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회, 소모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둘째, 겨우 주체가 한 두명 남아 있을 뿐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름만 남아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학회, 소모임의 자기 성격과,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개별화, 계 모임화, 가족주의화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변혁지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①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씨말리기 작전에 의한 96, 97년 무차별적인 탄압 때문입니다.

① 물리적 탄압

물리적인 미제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권의 눈에 가시인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핵심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연행 검거로 인해 핵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그 파급 효과로 인해 학회, 소모임에 대한 안정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반동적인 이데올로기 유포와 잡사상의 유포

한총련 와해 책동의 또 다른 한축으로 한총련 이적규정(폭력 이적이라는 이미지 유포로 거리감을 갖게 함; 교육부 장관의 새내기에게 보내는 편지, 검찰의 편지)의 율가미를 씌우고 분열주의 유포로 한총련 내부의 분열이간 책동 자행, 제국주의 문화, 개인주의 유포로 대학문화와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는 등 사상적 침투를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핵심부재

핵심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지 못하는 문제와 핵심일꾼들의 학회, 소모임에 대한 지도내용의 풍부한 고민부족 등 지도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대중운동에 대한 조직과 지도의 문제

대학운동의 1년의 흐름과 일상적인 학회, 소모임의 흐름이 통일되지 않은 측면, 대중투쟁과 학회, 소모임 흐름에 대한 균형적인 지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급박하게 투쟁이 제기되는 경우 조직되는 숫자는 한정되다 보니 운동대오의 힘을 모아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있는 숫자를 동원하려는 모습으로 되면서 그나마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학회, 소모임까지 투쟁 흐름에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물론 단위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끔 결합하겠지만 당장의 투쟁을 결합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정세의 요구를 인식하고 다른 방도로써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학회, 소모임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투쟁 흐름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기층의 흐름을 잘 총화하고 진행하고 전체 흐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잘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④ 학회, 소모임 운영 자체의 문제

① 주체의 문제

준비된 일꾼(학회, 소모임 주체와 교사부족으로 교양내용에 풍부한 고민부족 등 한계 노정)

즉, 중앙간부의 부재와 재생산 구조의 허약성으로 인한 악순환의 결과

(학회, 소모임 일꾼들의 학생회 상층으로 공간이동만을 하는 경우와 학회, 소모임은 그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고충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반복)

2. 내용, 운영의 문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식을 고민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영상 소모임과 역사연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단편적이고 자기 정체성(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영상때###

영상세대인 신세대의 취향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한 기층조직 건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학생회 문화국에서 직접적인 관여로 신입생을 맞이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음해에 그 새내기들이 직접 사람 사업을 통해 조직 형태를 취하였고 부족하지만 TV, 비디오, 카메라 등 기본적인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성원들의 힘을 모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직을 운영하는데 창조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모습이 1년의 흐름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올 초도 마찬가지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새내기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사업과 투쟁 일정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3월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대부분의 새내기들이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 버렸습니다. 만약 새내기들의 지향과 요구에도 맞고 운동의 요구에도 맞는 다양한 내용을 마련해서 그 새내기들에게 분공을 주고 분공된 것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더라면.....

스크린 쿼터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한 미국의 문화적 침투와 통상압력에 대한 교양과 의식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새내기들의 지향에 맞게 직접 영화(물론 수준은 굉장히 낮겠지만)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사업 내용과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새내기의 대학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4년간의 희망과 계획”이라는 주제를 정한다면 먼저 조를 나눠서 분공을 하고 학우들과 인터뷰를 하고 편집하고 상영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지금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연구회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조금만 고민하고 계획을 가진다면은 그 조직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소모임 건설의 자기배경과 그 의의

각 대학에서 소모임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다른 대학에서 모범적으로 건설하니까 막연하게 우리대학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에서 소모임 건설을 왜 제기하고, 소모임 건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조직적인 공유가 있어야만 소모임을 건설하는 데 있어 소모임 주체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기층일꾼들까지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 소모임 건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봅시다.

(1) 기층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단대 여학생회나 과여학생부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소모임 건설을 제안하며 단대나 과에서 소모임 주체를 건설하고 주체뿐 아니라 단대와 일꾼들까지 적극적으로 소모임 건설에 참여하며 여학우들을 소모임 두리로 묶어냄으로써 소모임 뿐 아니라 기층 단대나 과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핵심발굴과 양성의 장이 된다.

소모임을 건설하게 되면 단지 소모임을 통해 여성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우리의 내용을 전달하여 여학우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장으로 가져감으로써 여학우들 속에서 우리의 내용을 주동적으로 받아안을 수 있는 핵심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모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주체를 울곧게 세워냄으로써 또 하나의 핵심일꾼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모임 주체 한사람이 울곧게 서고 그 주체가 소모임 성원들을 울곧게 세워내려면 단지 책임지는 주체만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층일꾼 전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작은 소모임 운영속에서부터 우리의 핵심적 일꾼들을 발굴, 양성해 봅시다.

(3)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

우리는 총학생회, 단대여학생회, 과여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간부나 몇몇 학우들속에서의 여학생운동, 주체적인 여성성, 자주적인 여성성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여학우들에게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처지들을 인식시키고, 우리 여학우들이 올바른 인식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다 심도깊게 고민해보고 여학우 스스로가 자신의 삶속에서라도 자주적인 여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학우들이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해보고, 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지 몇몇의 행사나 사업속에서 정립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도 중앙과 단위에서는 사업의 대중성,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보다 많은 여학우

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여학생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토대속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여학우들의 모임을 각 단위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내어 소모임이 제기되고 건설된다면 이것이 곧 총여학생회, 사업의 대중화, 즉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4) 청년학생 운동의 강화에 복무하는 장이 된다.

지금 조국과 현사회의 처지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은 결코 올바르게 갈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소모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처지와 내 조국의 현실을 함께 인식시켜가고 여학우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주적 여성으로 서게 하고, 우리의 투쟁에 적극 결합해 들어간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조국해방을 앞당기는 길일 것입니다.

4. 소모임을 건설할 때 대해

(1) 주체가 없는 미개척 단위

무엇보다 소모임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핵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배치하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를 마련했다면 동시에 그 주체를 단련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조직사상적 자양분을 주고 실천활동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해야합니다.

(2) 건설방도(주체만 있고 소모임이 없는 경우)

① 실사, 연구단계

② 조직화 단계-일대일 조직화, 사업과 투쟁에서의 조직화

③ 초보적인 사업진행

#모 대학간부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지요#

그 간부는 1학년 2학기부터 과에서 소모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공정이 실사, 연구단계였다. 과활동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대상을 1학년 동기를 주 대상으로 정했고 상반기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동기 50명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 자기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한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판단근거가 미약한 친구,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친구, 매우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친구 등(비록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분석한 근거를 취합해서 50명을 A그룹에서 F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A그룹에 가까울수록 주요포섭(?)대상자로 설정하고 우선 개인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편 소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성격을 설정하려 했지만 전공학문 자체를 운동과 연결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문예소모임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기능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하게 된 결과 기능을 배우는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 그것도 그만 두고 결국은 사회과학 연구모임으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모임의 성격을 결정하고 나서 그 간부는 본격적으로 일대일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집으로 불러 가기도 하고 술자리를 갖기도 하는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화를 통해 대상자와 친밀감을 높이면서 정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총화록을 마련하여 만남을 통해 얻은 소감을 그때마다 기록해서 조직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쌓아갔습니다.

최초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친하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2명에게서 소모임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간부는 그들에게 역할을 분공해 주었습니다. -분공은 자신의 주변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소모임에 참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로 결의를 보게 되었다 그 간부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가져갔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설정해 놓은 C그룹에 망라되어 있는 친구들까지 만나는 성과로 10여명의 과 동기들을 조직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비모임을 두차례정도 진행한 후 정식적으로 소모임 창단모임 즉 주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체가 모여 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합의하고 소모임의 명칭과 주체가, 소모임의 규율, 모임의 횡수, 회비등을 결정하고 초대회장도 선출했습니다.(그 간부가 회장이 되었다.) 그 간부는 첫모임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직화 사업은 그 후에도 계속되고 물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임이 결성되고 초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학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동기였는데 알면 얼마나 알았겠는가 하며 수련회도 가고 매우 초보적인 형태의 사업을 통해 소모임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고 모임의 내용도 경험을 통해 풍부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소모임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사업의 첫발을 뜨고 소기의 결실을 보게 되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한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간부의 말을 빌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변화, 발전의 가능성을 믿고 이악스럽게 사업했던 것입니다. 요인을 분석해보면 그 간부를 조직적으로 지도했던 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화하고 나서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해 주었으며 과제에 대한 분공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간부의 정치사상적, 이론실록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사상 학습을 진행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의 고도의 책임성과 헌신성에 의한 성과였던 것입니다.

5. 소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 운영 활성화방도

①주체를 명확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주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그 모임의 운영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며 생명이 짧고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느 한사람에게 주체를 맡기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책임자라는 감투만을 쥐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발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와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주체가 자기 사업속에서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생활일정들을 잘 짜들어가고 구체적 대안들도 만들어보면서 주체 스스로가 핵심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간 대학의 소모임 주체들이 아예 고민도 안하고 안하무인으로 달려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체 스스로가 기간의 소모임 운영에 어떻게 복무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일해왔는지 되돌아보고 힘을 시기이지만 우리 주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위성원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우뚝 서는 주체들의 힘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②자기 내용을 개발해야 합니다.(전문성)

줄거리가 단조롭거나 부실한 소설책은 지루한 법이며 끝까지 읽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사상적 깊이가 얇은 소설은 감동이 없고 설령 다 읽는다 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어 기억에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소모임의 내용이 빈약하면 그 소모임은 생명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새내기가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는 기본동기는 그 모임의 내용과 성격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정치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선배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참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운영에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용이 풍부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운영의 문제라면 그 조직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학우들에게 여성으로서의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여학우들이 울곧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소모임이 단지 학습을 중심으로한 여성문제 연구반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의 신세대들은 읽는 것보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학습을 중심으로한 여성문제 연구반이나 영화를 보면서 여성의 현실을 바라보고 토론하는 소모임, 대중매체속에서의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소모임등 소모임 주체가 주동적으로 잘 고민한다면 여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여러형식과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모임의 내용이 주로 학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척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하지만 딱히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고 예전의 방법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습의 내용을 미리주고 문답형식으로 만들어 문답풀이를 해봅시다.

·학습의 내용을 주체가 일괄기조하고 성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보다 부분별로 나누어서 성원전체가 참여해 자기나름대로 준비하고 자기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봅시다.

·주체가 조금더 고민해서 월단위로 한번호 기간의 학습의 주요내용들을 뽑아 퍼즐날말풀이등을 만들어서 성원들에게 경쟁심도 심어주고, 기간의 내용들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비디오도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그 이외에 객관적으로 평이 좋은 여러 비디오들을 보면서 그속에서의 여성의 성격 문제등을 얘기해보는 방법들도 동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다양하고 폭넓은 운영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정에서 소모임을 운영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그 경험들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세미나 위주의 운영을 탈피하고 현장탐구활동을 강화한다든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사토론, 기지촌 방문, 군기지 탐방, 장기수 선생님 또는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통일기행, 비디오 매체를 통한 학습 등이 있겠습니다.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자.(학습뒤의 뒷풀이, 야유회, 모꼬지 등)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하루 한번이나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꼭 모임을 가집시다.

>여러 형식과 내용으로 운영합시다.(비디오, 사진, 영화, 시집 등)

->일, 주단위, 월단위로 작은 사업계획을 만들어 복시다(여성문제에 대한 분야별 선전하는 날, 단체나 탁아소 방문하는 날, TV프로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날, 영화보고 토론하는 날, 학습하는 날 등)
무엇을 하든지 주체가 올바르게 서있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주체 스스로가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심을 높이고, 올바르게 서기 위한 주동적인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④성격이 비슷한 모임들과 연계를 잘 가져 갑시다.(타 단대나 타 대학, 지역과의 연대활동)

경험을 서로 배우고 모범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활동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 편집부 연합, 울동패, 풍물패 연합 등을 예로 들수 있겠고 서로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에서부터 울동경연, 풍물경연, 과소식지 공동 전시회,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자기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⑤성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개별일꾼에 대한 지도를 잘하자고 하는 것은 개별일꾼의 고민을 제때에 총화하지 못하였을 때 나서는 후과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명의 일꾼을 잃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문제(일군 연애문제, 전망문제)가 결국 전체 소모임의 문제로 확대되어 얽힌 실타래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하기에 개별지도도 잘 해야만 소모임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개별지도도 잘한다는 것은 개별일꾼의 고민 총화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책과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꾼에게 분공을 주고 총화하는 과정까지가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⑥연례활동을 정상화 해야합니다.

학생회의 1년의 흐름을 보면 선거, 겨울방중, 새내기 배움터, 개강사업, 모꼬지, 대학 출범식, 지역 및 전여대합/한총련 출범식, 농학, 방학, 여름농학, 학술제 및 대중제의 흐름과 3.1, 4.3, 4.19, 5.18, 6.10, 8.15, 10.3, 11.3투쟁등 큰 맥에서의 사업과 투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여 중앙은 소모임에 대한 지도를 진행할 때 이러한 흐름에 맞게 지도내용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마련하여 지도하여야 하고 소모임 또한 이런 큰 틀에서자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⑦정적(靜)인 활동보다는 동적(動)인 활동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연구회가 4.3민중항쟁과 관련한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4.3과 관련한 학습 한 두 번과 토론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답습을 반복하는 경우는 소모임에 활력을 줄 수 없을뿐더러 생동감 있게 세미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동적인 준비라면 사전에 준비학습, 4.3에 대한 학우 의견조사, 제주도 기행을 통한 현장 학습, 4.3관련자 취재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세미나를 통해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그날한 학습내용에 대한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들을 만들어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학우들속에 미리 선전해놓고서 여성문제에 대한 퀴즈대회를 개최해봅시다.

-신문 스크랩, 신문 주요기사들을 선전

-소모임의 명의로 주단위로 종이프랑 쓰기

-소모임단위로 생활규율 속에서 지각하는 사람에게 1000원씩 걸어서 책을 사기도 하고 선전물을 만들어보기도 합시다.

-여성문제를 시리즈 선전물로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배포해봅시다. 문건 한장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낸 선전물이라면 학우들에게 선전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준비하는 성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리라 믿습니다.

⑧학우들과의 사업을 잘해야합니다.

학우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문제는 소모임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귀결됩니다. 또한 자체의 활동력을 확대시키고 생명력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됩니다. 동시에 소모임을 보다 확대 재생산하는 의식화, 조직화의공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소모임의 특성과 고유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통해 학우들과의 사업을 가져가야 합니다. 풍물소모임인 경우에는 과학우들을 대상으로 풍물배움터를 정기적으로 열어 그들이 익히기 쉽고 재미있는 가락으로 선택해 풍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여기에 흥겨운 민요도 보급하여 과차원의 술자리나 집단 놀이를 할 때 과학우들이 모두 젓가락을 들고 같이 부를 수 있다면 그 과만의 진풍경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⑨방중사업의 중요성

조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중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마음 먹은대로 쉽게 되는 것이라면 굳이 소모임 활성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운동의 대중화를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중을 발동하고 민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고도로 복잡한 공정을 요구합니다. 운동자체가 사람의 가장 목적이식적인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방중활동은 소모임의 내적정비와 단련의 유력한 공간입니다.

현실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방학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소모임의 향후 활동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방학기간에 학우들과의 사업을 준비하고, 소모임 자체의 단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활동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겨울 방학은 더욱 중요합니

다. 소모임 1년 사업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내기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아닌 겨울방학입니다. 방학기간에는 학우들에게 편지쓰기에서부터 정상적인 학습생활, 기행활동, 수련회, 소모임 운영에 대한 연구활동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학은 청년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황금같은 시간입니다. 때문에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주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모임 사업의 성과를 백방으로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⑩공동체의식 함양

소모임의 성격이나 처지가 비슷한 곳과 교류나 연계등도 좋은 방도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체육대회나 야유회, 다과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⑪그 외 모임 운영에 있어서의 방법

어떤 모임이든지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학습을 한 후에는 꼭 간단하게라도 뒷풀이를 합니다. 풀밭에서 과자를 함께 먹는거나 차를 함께 마시거나 가능한하면 술도한잔

모임의 수칙을 정합니다

수칙을 정할때는 모든 구성원이 토론으로 만장일치를 거처도록 하며 어겼을 경우의 가벼운 벌칙들도 괜찮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학습만을 계기로 모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야유회나 모꼬지 등을 통한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나 다른 단대 여연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6. 소모임에서의 학습내용

일상적으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학습내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됩니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떤 단계로 내용을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문제를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소모임 성원들이 일반학우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이나, 여성운동의 기원, 사회속에서의 여성의 위치 등은 성원들이 받아 들이기에에는 무척 어렵고 난해할 것입니다.

우선 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이 여성으로서 어떠한가에 대한 것부터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삶을 얼마나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지, 자신이 여성임에 만족하는지, 주위사람들이 말하는 여자다운 여자, 착한 여자가 어떤 여성상인지 등 성원들이 직접 생활속에서 느꼈던 것부터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성원들의 생활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주위의 여러 사회부분(영화나 TV잡지, 여성의 상품화, 여성의 사회참여, 사회에서의 여성등)과 맞물려 학습이나 토론내용을 잡아나 간다면 쉽게 공감하고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우리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자주적, 주체적 여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모임을 건설해볼까요?

-소모임의 소재를 고민합니다.

현재 여학우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참신한 소재를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영화 보기를 소재로 선정한다면 일단 영화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임 것이고, 탁아사업 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과 함께 하는 것을 소재로 선정한다면 일단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임 것이며 실천활동까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행소모임, 대중문화 비평소모임 등 참신한 소재들을 고민해 봅시다.

-소모임 구성원 모집

겨울방학이므로 학교전체의 새내기 사업을 적극 활용합니다.

①기본 선전을 합니다.

총여 새터 공간과 단대 새터 공간에 자보 선전으로 새내기들에게 알려냅니다.

그리고 방중부터해서 학기중에도 소모임에 대한 설명과 모집 광고를 학교 곳곳에 선전합니다. 기본 자보선전과 함께 인터넷 자유통계서관 또는 각 학생회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해서도 선전을 합니다.

②새내기 사업에서 소모임을 알려냅니다.

총여 새터를 진행할 때 소모임 소개, 설명을 하고, 뒤풀이 시간에는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교양과 함께 소모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속작업으로 전체적으로 연락처를 받게 될테지만 일대일로 만나면서 친분이 쌓이면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이후에 개별적으로도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모임으로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각과 새내기 사업과 단대 새내기 사업때도 참석하여 총여학생회와 여성문제에 대해 교양 해설하고 소모임에 대해서도 알려냅니다. 그리고 가능한 뒤풀이 공간에도 참석하여 일대일로 조직화 합니다.

③의식화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를 할 때 친분이 바탕에 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문제의 심각성, 소모임에 대한 흥미 유도와 중요성에 대해 풍부하게 정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친분만으로 소모임에 들었다가 이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 소모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소모임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그 새나기는 비록 이후에 소모임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총여학생회 사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호적 대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때는 의식화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합니다.

-탁아소모임을 모델로 소모임의 구체적 사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단위에서 참고하시고, 다른 소재로 소모임을 만들더라도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탁아 소모임]

1.주체 마련과 기본적 단련

조직적 논의를 통해 주체를 설정합니다.

주체는 방학기간 최소 여성학강의와 새여성학 강의는 정독을 하여 전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2. 본격적 준비

조직적 논의를 통해 탁아소모임으로 소재가 결정되었다면 주체를 중심으로 탁아사업에 있어서 활동과 교양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가져 갑시다.

-고민해야 할 내용

1)지역에 가까운 탁아소(또는 공부방)이 있는가

2)활동방법?

3)활동내용

4)조직적 총화 구도?

5)대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가상 계획]

1)영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단체 소속인 탁아소(또는 공부방)가 좋을 듯합니다

2)활동방법

:학습

-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격주로 금요일 학습(또는 세미나)을 한다.

-월요일에는 여성학 학습, 수요일에는 탁아사업과 관련한 여성문제 학습, 격주로 금요일에는 실천활동 프로그램 마련.

-학습계획은 1년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정의 변수를 고려해서 미리 짜놓읍시다.

-주체는 그날 학습할 주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교양자료(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를 기본으로)를 일주일 전에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연대단체나 여성관련 사이트등을 통해서 풍부한 내용으로 모임을 준비한다.

-구성원들은 받은 자료 이외에 다양한 방도로 여러 가지 정보나 사례등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 올 수 있도록 한다.

:실천활동

-격주로 금요일에 한번 실천활동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한다.

3)활동내용

-월요일 학습

전체적인 여성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학습전에 매주 나오는 여성신문 토론회를 함께 하면서 시기마다의 여성정책을 놓치지 않고 파악한다.

주제와 관련한 영상학습 또는 비디오 학습도 병행한다.

1단계 (1학기)

: 성장과정에서 주입되는 환경에서의 여성문제,

대중매체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문제

성상품화와 성폭력에 관한 내용

2단계 (여름 방학)

: 호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매매춘, 기지촌 등 사안별 내용과 한국 사회모순과 여성문제

3단계 (2학기)

: 여성운동이론과 여성운동사

-수요일 학습

: 실천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여성노동자 문제와 가사노동 및 육아에 관련된 내용 - 비정규직문제, 모성보호 및 여성의 복지(여성정책)등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금요일 실천활동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봅시다. 기본 농활 준비 할 때 어린이반을 연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주제를 정해 봅시다.

부모님을 사랑하자. 내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릴 때부터 주입되기 쉬운 성역할 깨기, 성교육 등..

-방도를 정해 봅시다.

동화읽어주기, 율동가르쳐 주기, 그리기, 만들기, 집단놀이, 퀴즈놀이, 비디오 함께 보기 등 이외에도 참신한 방도들을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고 실천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와 한계점 극복 과제들을 찾아 봅시다.

4)조직적 총화구도.

소모임 주체는 1년 활동계획 속에서 매월 활동계획을 조직(여학단위)과 함께 수립합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적극적으로 소모임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매주 소모임 활동에 대해서 총화하고 월말에는 그달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조직(여학단위)과 함께 평가하고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대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매주의 학습과 실천활동 내용을 화장실 선전으로 알린다.

-실천활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과 함께 자보로 선전한다.

-한달에 한번 소식지를 만든다.

-대중사업 (대학축제와 8월 학교 또는 지역 통속때 문화공연을 아이들과 함께 만든다.)

학우들과 함께 하는 공개세미나, 토론회를 만든다.

03학번 새내기와 함께라면^^ 룰루랄라~

트렌 : 9기 전여대협(건) 용도 : 새내기 사업 잘 하기 위한 도움극

0. 들어가며

03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즐겁고 힘찬 2003년을 만들어갑시다.

그 시작, 첫실음이 될 2월.

새내기 새로배움터도 있고 여학우 새로배움터를 하는 단위도 있을 테고 새내기들과 함께 촛불시위를 하는 단위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테지요!

지금 이 글은 그 계획을 조금은 더 내실있게, 아직 준비가 안 된 단위가 있다면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는 글입니다.

1. 새내기 사업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가?

1) 새내기들의 자주성을 드높이자!

새내기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 효순 미선이의 죽음, 여성들의 힘찬 진출 등으로 03학번 새내기들은 반미자주 민족대단결 의식과 평등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적인 예상이 아닌 새내기들 자신의 참여로 새내기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식화 내용을 구성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내기들에게 민족애, 자주 평등의식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합니다.

2)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하자!

새내기 사업 2월에만 하고 말 것 아닙니다. 장기적 전망에 따라 그에 맞게 진행해야 성과가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당장 실무적으로 바쁘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소모임 등 새내기들이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함께 2월 새내기 사업을 통해 조직화해야할 것입니다.

3) 시작이 반이다. 그 처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첫 걸음을 떼느냐. 그에 따라 새내기 사업의 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내기 사업의 첫발을 어떻게 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각 단위별로 잘 나와야겠습니다. 가능한 꼼꼼하게 계획 잡시다!

4) 선배들은 열린 자세로 새내기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선배들의 생각으로 무조건 이끌어야한다는 생각은 자칫 잘 못 표현되어 새내기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선배들도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계속 해야겠습니다. 열린 자세, 평등한 마음가짐 등.

5) 새내기 사업을 하면서 선배학번들도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함께 만듭시다.

2. 2월 새내기 사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새내기 의식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새내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새내기들과 함께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①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 : 전여대협에서 제출한 예를 잘 활용해서 해도 좋겠네요!

② 직접 많이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2) 새내기들과의 만남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① ★★새로배움터를 잘 준비합니다.

ㄱ) 전체 새로배움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새네기가 새터를 함께 하는 경우, 단과대별로 과별로 새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터에 어떤 내용과 방도로 함께 할 것인가와 얼마만큼의 단위를 책임질 것인가의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

성폭력문제, 대학 내 성문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쉽게 접하고 꼭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주제로 잡습니다.

새터 때 반성폭력 수칙이나 내규 등을 정해서 지킴도록 합니다.

-방도

새터 일정에 여학생회 내용 넣기 : 강연이나 영상물, 촛극 등을 준비해서 일정에 포함시키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새터 자료집에 여학생회 내용 넣기

새터 장소에 선전물 붙이기 : 여학생회 내용과 소모임 모집 선전물을 간단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붙여놓아도 좋겠네요.

-얼마만큼의 단위 일정을 함께 할 것인가

과여학생회, 단과대학 여학생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전 단위를 다 돌아보고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 단위를 다 책임지고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되 집중 단위를 나름대로 결정하고 제안하여 진행합니다.

ㄴ) 여학우 새내기 새로배움터

과, 단과대별로 또는 총여학생회 차원으로 여학우 새터를 따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여학우 새터를 잘 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써볼게요.

-일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새터 일정이 많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일일이 잘 해야겠지요!

-선배학번들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선배학번들도 클 수 있는 계기입니다. 공부도 하고 준비를 잘 합니다.

-선배들이 꼼꼼하게 새내기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선배들끼리만 즐거우면 안 되겠지요. 새내기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선배들이 새내기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용을 잘 짜야 합니다. 내용을 쉽고 재미나게 여학생회 내용이 잘 풀려나도록 합니다.

-새터 한 후 조직화된 새내기들을 잘 챙겨야합니다. 그리고 새내기들이 여학생회와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내기들의 상황에 맞게 후속작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② ★★소모임 모집 등 새내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듭시다.

각 단위별로 소모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소모임을 구성할 건지 어떤 형태의 소모임을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꼭 세웁시다. 작년 평가에 기반해서 올해 더 잘 해나가도록 준비해야겠지요! 소모임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라도 새내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합니다.

③ ★★각 과 학생회실 방문, 카페 활동 등 아무튼 무조건 새내기 속에 파묻혀자!

여학생회에 대해 알리고 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기 위해서 새내기들 속에 파묻히도록 합니다. 단과/과 새터를 함께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과학생회실이나 카페 등을 통해 새내기들과의 만남을 많이 만들어나가도록 합니다. 촛불시위를 통해서 그 위력을 파악했다시피 인터넷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ㄱ) 03학번 새내기 카페에 잘 들어가기

이미 만들어져서 활성화된 카페가 있을 것입니다. 카페 가입을 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단지 새내기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학생회에 대한 의식화와 함께 여학생회 사업을 새내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알려줍니다.

ㄴ) 총여학생회 새내기 카페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여성관련 소식이나 대학 내 성문화 등 불거리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새내기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터나 여학우 새터 등을 통해서 카페를 많이 알리면 더 좋겠지요!

3. 총여학생회나 단과대 여학생회가 없는 경우

1) 새내기 의식조사 사업을 통해

새내기 의식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성 관련 사안이나 여학우 복지 등의 질문을 포함시켜 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해나가도록 합니다.

2)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통해

- ① 자료집에 여학생회 내용 넣기
- ② 새터에서 직접적인 강연이나 영상물 보기
- ③ 토론 거리에 포함시키기
- ④ 반성폭력 수칙이나 내규 정하기
- ⑤ 평등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에 함께 합니다.

3) 장기적으로 여성국 간부를 둔다거나 하여 여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구조 마련

4. 새내기 사업 도움 자료

- 1) 2002년 새내기 사업을 위해 제출된 문서 -> 전여대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 2000년 서울대 인문대 새터 반성폭력 내규
- 3) 반성폭력 수칙 -> 2002년 경희대 총여학생회
- 4) 의식조사 사업의 예 -> 전여대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새내기 의식조사사업, 이렇게 하자

발신 : 9기 전여대협(간)
수신 : 각 급 단위 학생회

각 대학마다 합격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교정에 새내기들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2003년을 새내기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시기에 새내기 의식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내기 의식조사사업이란, 말 그대로 새내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새내기들의 의식정도를 정확히 알고 새내기들 속에서 살아숨쉬는 총여학생회가 되기 위해 꼭 새내기 의식조사사업을 진행합니다.

1. 새내기 의식조사사업의 예

새내기 의식조사사업은 대학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예를 참고하여, 대학에서 꼭 필요한 설문의 내용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새내기 의식조사 문항의 예입니다.

예> 00대 03 새내기 설문조사

1.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임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 ① 수시로 느낀다.
- ② 특별한 경우에만 느낀다. (구체적으로로는?)
- ③ 전혀 느끼지 않는다.

3. 자신의 성(性)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이성(異性)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이성(異性)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한다.
- ③ 나는 나의 성에 대해 만족한다.
- ④ 나의 성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4. 여성 혹은 남성이라서 당하는 차별은 없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4-1. 있다면 어떤 때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2.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 ① 부담하다고 느낄 때에는 그에 항의하고 사과까지 받아낸다.
- ②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 ③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참는다.
- ④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 ⑤ 기타 ()

5. 양성 평등이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수선택 가능)

- ① 여자라서, 남자라서 동등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이다.
- ② 양성 간의 차이를 뛰어 넘는 것이다.
- ③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 ④ 기타 ()
- ⑤ 모르겠다.

6. 자신이 생각하는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즉, 강간만을 뜻한다.
- ② 좋아하는 표현이 지나쳐서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 ③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이다.
- ④ 남성이 여성에게 성을 매개로 가하는 폭력이다.
- ⑤ 성적 자기결정권(성적 자기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다.
- ⑥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 ⑦ 기타 ()
- ⑧ 모르겠다.

7.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객관적, 물리적 기준 (얼마만큼 심한 접촉 혹은 발언을 했는가)
- ②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인 판단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느꼈는가)
- ③ 기준이 불명확하다.
- ④ 기타 ()
- ⑤ 모르겠다.

8.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수 선택 가능)

- ① 심한 노출 등 유혹 때문
- ② 성충동을 참지 못해
- ③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 ④ 좋아한다는 표현이 지나쳐서
- ⑤ 의사소통의 부재
- ⑥ 성폭력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이기 때문
- ⑦ 남성다움의 과시
- ⑧ 성의 상품화와 퇴폐문화 만연
- ⑨ 기타 ()
- ⑩ 모르겠다.

9. 자신이 혹은 주변사람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혹은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 ① 무관하거나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
- ②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거나 소리만 지른다.
- ③ 몹시 기분 나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피력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 ④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 ⑤ 성폭력 전문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 ⑦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
- ⑧ 기타 ()
- ⑨ 모르겠다.

10. '성(性)'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11. '성(性)'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계기, 혹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① 성교육 (중고등학교 혹은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
- ② 포르노비디오

- ③ 소설 혹은 만화
- ④ 잡지
- ⑤ TV 혹은 영화
- ⑥ 관심 없다.
- ⑦ 기타 ()
- ⑧ 모르겠다.

덧붙여, 총여학생회 새내기사업과 관련된 설문 내용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2. 새내기 의식조사사업의 활용 방안

1) 총여학생회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새내기들이 많이 오는 곳이면 무조건 배포하고 수거하면 됩니다. ^^; 대학본부에서 진행하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과반학생회 대면식 등 새내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최대한 많은 새내기들에게 설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여학생회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총학생회 여성국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핵심적인 몇 개의 문항을 첨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단대 여학생회 / 과 여학생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단대/과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설문지에 첨가해서 진행하되, 자기 단대/과 새내기들에게 다 설문받겠다는 각오로 진행합니다.

3. 중요한 것은 의식조사사업의 결과를 꼭 정리하고, 이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기껏 진행해놓고, 설문조사지를 잃어버리거나 하지는 않겠죠? ^^

꼭 반드시 수거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새내기들의 의식성향이 어떠한지 파악합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전어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서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고, 새내기들의 의식을 토대로 총여학생회 새내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과여학생부 건설을 제안합니다.

수신 : 각 학과 과장님, 집행부

발신 :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하나. 과 여학생부가 필요하나요?

두울. 과여부장은 어느 자리 소속 인가요?

세엣. 과여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엣. 과 여학생부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짜나요? (예)

일만 여학우와의 경~쾌한 소통을 준비하는

하나. 과여부장의 필요성

과 일에 관심 없는 여학우들이 많습니까?

우리과는 여학우와 남학우가 조화롭게 어울리나요?

(여)대학생으로 느끼는 불평등한 문제가 있나요?

아직도 남성과 결혼에 의존하는 여학우가 있나요?

과 여학우들이 여성으로 느끼는 복지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과는 완전하게 성폭력 없는 건강한 과인가요?

아직도 '여성다움', '남성다움' 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나요?

과라는 작은 단위에서도 과장님이 모두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여부장님은 과집행부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과 내에서 뿐 아니라 도처에 널려 있는 문제들을 한해동안 과학우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사람이지요.

최고 지성의 전당에서 살아가는 여대생들이 오히려 여성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외진작에 이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알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여성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개척하지 못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정에 의존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대학이라는 곳에서부터 발견하고 새로운 해답을 실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여부장님들은 과내에서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과행사에 참여하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면서 양성 모두 조화롭게 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너무 두루뭇실하게 말씀드려서 어렵나요?

그럼 우선 과여부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두울. 과여부장의 소속은?

① 과학생회의 집행부서입니다.

=> 과여부는 과학생회의 집행부서입니다. 또한 과사업을 여학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과사업에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축제 때 벌이는 과 행사 혹은 체육대회에서 여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지요. 대개 여학우들은 과행사는 안주거리 내리기나 과전습기, 체육대회 때는 응원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총여학생회의 확대운영위원이며, 단대 여학생회의 운영위원입니다.

=> 총여학생회는 전체 여학우들의 생각과 요구를 모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중앙 조직이며 단대여학생회와 과여학생부장님들은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들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진정으로 학우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세엣. 과여부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① 기본적으로 과 여학우들을 활동력 있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 알게 모르게 여학우들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으로 살아오도록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대생데..' 라고 하는 생각 이면에 거의 남성 위주의 대학과 사회에서 의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며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려하는 편입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에 보다 적극적인 주인으로 나서

록, 가려져 있는 본성을 확~실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과여부장님은 활동력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에서 남학우들 만의 축구대회나 농구대회 보다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② 과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방지하고 나아가 과 학우들의 성관념을 바로 세워 줍니다.

=> 남학우가 더 많은 과 같은 경우는 대개 폭력적이고 군대식의 관점을 갖고 동기, 후배를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군기교육을 시키거나 폭력적 언행으로 비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 뿐 아니라, 모꼬지나 과 행사에서 후배, 혹은 신입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일이 과 내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같이 지낼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넘겨 버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성폭력이라는 것이 약자에게 남길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과여부장님이 가장 앞서서 실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는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없는 건강한 과로 만들겠다는 자치 규약을 만듭니다.

* 성폭력이란..

학내에서 뿐 아니라 공동체로 생활하는 집단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문제가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학내에서 매년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배와 후배라는 권력관계, 애인사이, 또한 교수와 학생 간에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라는 말은 더 이상 논리가 아닙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바꾸는데서 부터 성폭력은 예방될 수 있겠죠?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느 집단에서든 스스로 성폭력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 그것이 해결방안입니다.

③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평등한 문제를 인식하게끔 합니다.

=> 4년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승진에 불리함을 당합니다. 혜택받은 계급으로서 더 높은 지위로의 상승에 호조건을 갖춘 여학우들은 종종 '나 혼자만 잘하면'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사회 생활에서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성도 실력을 갖춰 사회로 진출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성 본래의 역할은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저임금화, 여성노동력의 산업에 비급화를 가속화 한다든지, 여성을 눈요기 거리로 저하시키는 입사조건 등 정리해고를 당해도 여성의 평생직장은 가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은 분명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겠죠? 개별적으로 한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고 장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스스로도 결혼이나 가정에 의존하려는 심리를 버리지 못한다면 남성에게도 큰 부담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네엿.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 새로배움터

-새내기 여학우들과 선배 여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 여학우 대면식

-여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학생회로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자리

♣ 과 체육대회

-여학우 체전을 준비해서 여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한다.

♣ 학술제, 세미나, 작은 토론회

-방법 : 과내에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고 이후 토론

-내용 : 여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폭력, 성매매, 여성취업난, 비정규직, 매체에 나타나는 여성 문제 등등)

<어느 과여부장의 1년 사업계획서>

1. 목표

- 과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과여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집행부들과 함께 만들어 가자!
- 일부 과 학우들이 인식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바꾸고 우리과에서부터 성폭력을 근절하자!
- 여학우들이 과 사업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자!

2. 월별 사업계획서

- 3월 여학우 상견례
개강 파티_과여부장 소개
모꼬지_혼숙금지
- 4월 중간고사_과 학생회실 공부방 만들기
여성문제 토론회(성폭력에 관하여)
- 5월 여성 취업 강연회 듣기,
'여성 문화제' 함께 준비하기.
- 6월 기말고사_과 학생회실 공부방 만들기
여름 농활_여학우들과 여성농민반, 아동반 꾸리기
여름방학 '여성문제 바로 알기' 스터디 그룹 모집
- 7~8월 스터디 그룹 활동
여름방학 여학우 모꼬지
- 9월 여성문제 토론회(대학내 잘못된 성문화에 관하여)
대동제에서 '여학우 한마당' 함께 준비 하기
체육대회_우리 가 응원가 만들기
여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기
- 10월 중간고사_과 학생회실 공부방 만들기
모꼬지_성폭력 없는 모꼬지를 위한 반성폭력 자치 내규 만들기
- 11월 차기 과여학생부장 세우기
- 12월 기말고사_과 학생회의실 공부방 만들기
과 여학우 모꼬지

3. 그 외에 꾸준히 해야 할 사업

- _성폭력 신고하기 운동
- _자보 쓰기 : 이슈가 되는 여성문제에 대해 일주이에 한번 자보를 써서 알리기
- _여학생 신문 만들기(한 학기에 한번)
- _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과학생회 물건을 내 물건 처럼.

총여학생회, 요즘에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 지난 1월 20, 21, 22일 까지 서울 성회관에서 열린 진여대협(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수련회를 다녀 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총여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총여학생회 1년 나기를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542차 수요시위에 다녀 왔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신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인 한일관계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힘차게 지르고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하 참고 기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을 외치며 지난 92년 1월8일 시작되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정기수요시위가 540번,만 11주년을 맞았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어 온 수요시위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의 살아있는 장이자 자연스러운 연대의 장이 되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배상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문화의 축제속에서 우리정부와 우리국민들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

할머니들을 길거리에 내버려 둔채로 말이다.

언제쯤이면 할머니들이 춥고 떨렁한 일본대사관앞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

언제나 어색한 구호를 소리치지 않아도 될런지...

★ 2월 둘(셋)째주 총여학생회 L.T' 갑니다. 유후~

총여학생회 안윤효주랑 노진은경, 그리고 단대 여부장님(이하 집행부), 또 우리 과여부장님들과 함께 올 한해 학우들과 함께 짬나고 씩씩 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해봐요!

=>물론 여학생회 대표자나 간부가 아니더라도 조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멋진 분이시면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v

★ 예비대에서 열린 총여학생회 강연과 세로모임을 준비합니다. 우아~

남반과 꿈이 가득한 동아대에 이제 첫발을 디딘 우리 새내기들을 위한 성폭력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대 사정상 강연이 불가능하면 세로모임에서 과여부장님과 함께 새내기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새내기들의 건강한 웃음 소리가 가득한 과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 학습과 인터넷 사업을 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성학 학습을 배우고 생각을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총여 집이 만들어지면 매일 놀러오세요!

★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체격, 외모 등 모든 외적요소는 따지지 않는 멋진 총여 일꾼되기!

성폭력, 성매매, 성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멋진 학교. 실천하는 지성이 만드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열여덟번째 총여학생회 일꾼이 되실 수 있습니다.